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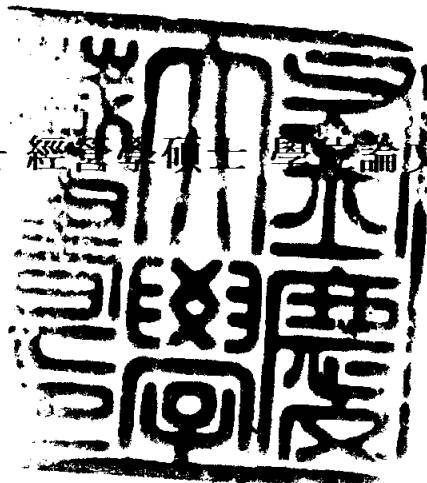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相互貯蓄銀行 不實債權의 效率的 回收方案

—事例分析을 中心으로—

指導教授 崔泰榮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2月

釜慶大學校 經營大學院

國際貿易學科 國制서비스 經營專攻

金 泰 祐

金泰祐의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3年 12月 24日

主 審 經營學博士 金 基 洙



委 員 經營學博士 崔 泰 榮



委 員 經營學博士 金 昌 浣



目 次

Abstract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의 背景과 目的	1
第 2 節 研究의 方法과 構成	3
第 2 章 相互貯蓄銀行의 不實債權發生 現況分析	4
第 1 節 相互貯蓄銀行의 不實債權發生 現況分析	4
第 2 節 他 金融機關과의 比較를 通한 不實債權發生要因 分析	9
第 3 章 相互貯蓄銀行의 不實債權 實態分析	18
第 1 節 相互貯蓄銀行의 不實債權 定意와 發生原因	18
第 4 章 相互貯蓄銀行 不實債權의 效率的 回收方案	21
第 1 節 業務節次上 改善方案	21
1. 不實債權의 整理	21
2. 不實債權回收의 效率的 方案	25
3. 不實債權發生時의 業務節次 方案	32
4. 信用評點시스템의 導入	34
第 2 節 制度的 不實防止方案	45
1. 貸出募集人의 登錄制 實施	45

第 5 章 外國 貸金業體의 不實債權回收 事例分析：日本을 中心으로	54
第 1 節 外國 貸金業體의 不實債權回收 事例分析	54
第 2 節 外國事例分析의 示唆點	58
第 6 章 要約 및 結論	60
第 1 節 研究의 要約 및 結論	60

表 目 次

< 표 2-1 > 주요 2002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통계	4
< 표 2-2 > 소액신용대출 취급동향	5
< 표 2-3 > 지역별 대출실적	7
< 표 2-4 > 상호저축은행의 규모별 영업실적	8
< 표 3-1 > 주요 상호저축은행들의 채권관리현황	20
< 표 4-1 > P상호저축은행의 연체관리 현황	29
< 표 4-2 >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자들의 연령분포도	30
< 표 4-3 > 새로운 채권관리방안 정리	31
< 표 4-4 > 여신관행 혁신방안	38
< 표 4-5 > ASP방식에 의한 운영전략 사례분석	44
< 표 4-6 >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현황	47
< 표 4-7 > 금융회사별 개인 대출모집인제도 운영현황	48
< 표 4-8 > 금융회사별 대출모집업체제도 운영현황	50
< 표 5-1 > 국내 Y상호저축은행 부실채권회수방법 분석	55
< 표 5-2 > 일본 P대금업체의 연체관리 사례분석	57

그 립 목 차

< 그림 2-1 > 금융권별 신용대출상품 대출금리	10
< 그림 2-2 > 금융권별 신용대출상품 대출한도	11
< 그림 4-1 > 신용평점시스템의 업무흐름도	37
< 그림 4-2 > 신용평점시스템 적용후 동일신청건수에 대한 신용대출 연체현황	39
< 그림 4-3 > 신용평점시스템 적용후 기간별 연체율 현황	40
< 그림 4-4 > 신용평점시스템 적용후 실행건수 및 금액현황	41
< 그림 4-5 > 신용평점시스템 적용 전/적용 후 등급별 분포율	42
< 그림 4-6 > ASP 방식의 신용평점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	43

Efficient Managerial Policies and Techniques for Recovering the Insolvent Credits of the Korean Mutual Saving Bank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ervice Management,
M.B.A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Tae Woo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efficient managerial policies and techniques for recovering the insolvent credits of the Korean mutual saving banks(KMSB). To achieve this purpose, various case studies related to the insolvent credits datas and causes have been extensively analyzed.

Based on foreign's successful case studies of recovering the insolvent credits(Japan), moreover, efficient managerial policies were proposed to be applied to the KMSB.

The demerits of the KMSB's loan process can be concluded such as convenience, swiftness, and high loan rate compared with other financial companies. However, It is found that the easy qualifications for the KMSB's loan have been comparatively stayed predominant over other monetary firms. If taken a close look at the KMSB's customers character, the KMSB has been become to have bad debtors as main target clients. That is why the question of the KMSB is how to reduce the rate of overdue bank loans and double ones of disqualified loan applicants.

The major alternative policies for recovering the insolvent credits of the KMSB are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redit scoring system

which is being done in other financial companies. Second, it is essential to efficiently arrange staffs connected with collecting the insolvent credits. Third, There is a way of entrusting both clients' credit scoring and recovering the insolvent credits to information service cop. or credit information one.

Several limits and problems awaiting to be solved are involved in this study. First, the investigation concerning exact datas is not thoroughgoing enough and the new policies are insufficient to present strategic substitute proposals. There will be need for further examined information and research methods in next study to exceed the limits which are mentioned above. Second,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re should be comprehensive study and discussion to suggest efficient managerial policies and techniques for recovering the insolvent credits to other financial companies.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背景과 目的

상호신용금고업계는 2002년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전신인 신용금고는 1972년 '8.3조치'의 보완대책 중 하나로 탄생하였다. 8.3조치란 정부가 당시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던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들의 사채를 동결시킨 조치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채를 동결시키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자금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3개 금융기관을 신설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정부가 이들 3개 금융기관과 관련된 법안을 신설한 목적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신용금고는 애당초 사금융에서 운영되던 자금을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시켜 서민금융이나 기업금융으로 양성화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250여개까지 증가하였지만 금융감독당국이나 고객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IMF 경제체제 이후 부실금융기관들이 폐쇄되든지 인수·합병되는 시점에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서민금융기관들은 나름대로 독자생존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처하였다. 한때 제1, 제2 대형금융기관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덜 언급된 상호저축은행을 안전하다고 판단한 자금의 대이동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급격하게 늘어난 수신자금의 운영을 놓고 각 상호저축은행들은 증권사나

투자신탁회사으로 자금운영을 간접적으로 위탁하여 변동금리에 의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자금운영전략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자체운영방식의 하나로 소액신용대출 위주의 대출영업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치열한 대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적격성판단을 뒤로 미룬채 각 상호저축은행들은 여신고를 높이기 위하여 마케팅전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들은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의 빌미가 되었다.

2002년 10월말 현재 100여개가 넘는 신용협동조합이 부실운영으로 정부로부터 영영정지를 명 받았고 대부분의 경우 파산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이 부실화된 이유 중에 하나로서 부실대출 발생 및 채권관리의 허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외부 신용정보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또는 아웃소싱을 하는 방법이 제기되었으나 인식부재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인 기업전략으로 채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저축은행 부실채권의 현황과 발생원인분석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외국(일본)의 부실채권회수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상호저축은행에 주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第 2 節 研究의 方法과 構成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현황분석하고, 상호저축은행이 타 금융기관들(신용카드회사, 보험사, 은행 등)보다 소액단기채권 위주의 발생건수가 왜 많은지를 대출상품들과의 비교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3장은 상호저축은행에서의 부실채권의 정의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고자 볼 것이다. 제 4장은 상호저축은행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방안으로서 업무절차상 개선방안과 제도적 부실방지방안 등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제 5장에서는 부실채권회수에 관한 방안으로 외국 사례(일본 대금업체)를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국내의 경우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정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과 한계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2 章 相互貯蓄銀行의 不實債權發生 現況分析

第 1 節 相互貯蓄銀行의 不實債權發生 現況分析

1. 주요 부문별 실적추이

위 < 표 2-1 >과 같이 작년 대비 상호저축은행들은 수신보다 여신쪽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가장 큰 원인으로 각 상호저축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300만원 이하 소액채권상품의 판매에 힘입어 여신금액의 증가율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2. 소액신용대출 취급현황 및 대책

2001년 7월에 마련된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감독상 인센티브를 부여한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표 2-1 > 주요 2002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통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1. 5	2001. 6		2002. 3		2002. 4	
	총 액	총 액	증감율	총 액	증감율	총 액	증감율
수신	19,343,842	18,576,304	-4.0	21,157,266	2.4	21,455,243	1.4
은행당	149,952	148,610	-0.9	174,853	2.4	177,316	1.4
여신	14,774,884	14,153,169	-4.2	16,853,769	3.5	16,975,661	0.7
은행당	114,534	113,225	-1.1	139,287	3.5	140,295	0.7

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http://www.sanghobank.co.kr>.

〈 표 2-2 〉 소액신용대출 취급동향

구 분	2001. 9	2001. 12	2002. 6	증감(율, %)
소액신용대출잔액(억원)	7,845	14,893	25,488	10,595(71.1)
소액신용대출비율(%)	5.3	9.3	15.2	5.9
소액신용대출연체율(%)	11.6	11.7	16.3	4.6

※2001년 12월말 대비 증감(율)임.

자료 : 금융감독원(2002), <http://www.fss.or.kr>.

2002년 6월말 현재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잔액은 2조 5,488억원, 연체율은 16.3%로 2001년 9월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여신의 연체율 18.8%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지역별 대출실적과 규모별 대출실적

< 표 2-3 > 와 같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분석할 경우 가장 큰 대출시장인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인천 경기지역의 대출채권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대출상품 성장률은 광주 전남지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히려 부실채권 발생규모를 상호저축은행들과 가장 많은 체휴를 맺고 있는 A신용정보회사의 자료에서는 전국 지역에서 영남지역이 가장 높은 연체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실채권의 규모를 판단하여 볼 때, 2002년 11월에 발표된 퇴출 신탁과 같은 상황이 상호저축은행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002년 12월 현재 상호저축은행들은 그동안 경쟁적으로 판매하던 500만원이하 소액대출 상품의 판매를 축소하면서 부실채권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3개월 미만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연체사실 통보 및 대출 원리금 변제를 상담하는 콜센터의 인원을 확대하고, 6개월이상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외부 신용정보사에 추심의뢰를 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웃소싱업체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를 하게 된 경우, 첫 단계로 신용정보사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회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들이 이미 타 카드사 또는 제 1 금융권과 타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연체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들은 대출신청자의 신용과 변제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승인과정의 허점은 채무자들이 다수의 상호저축은행에서 쉽게 소액의(300만원 ~ 500만원) 대출을 동시적으로 신청하여 원하는 고액의(2000만원 ~ 5000만원) 대출금액을 마련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부실채권의 발생원으로 전환되어 연체자들로써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5월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규모별 은행수는 < 표 2-4 > 와 같다. 이중에서 대출규모중 구성비가 가장 높은 여신금액대가 500 ~ 1,000억원미만이며 1,000 ~ 1,500억원미만의 여신규모의 저축은행수 증감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신규모의 70 ~ 80% 이상인 신용도가 낮은 신청자들의 소액신용대출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 만큼의 부실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2-3 〉 지역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지 역	은행수	여 신		
		총액	성장률	은행당 평균
서 울	27	7,302,665	1.6	270,469
부 산	13	2,503,742	2.7	192,596
대구/경북	13	861,847	0.0	66,296
인천/경기	25	2,917,507	0.7	116,700
광주/전남	10	1,167,908	5.0	116,791
대전/충남	7	417,400	1.8	59,629
울산/경남	8	443,700	4.0	55,463
강 원	2	183,397	0.2	91,699
충 북	5	403,112	-0.1	80,622
전 북	8	708,352	3.8	88,544
제 주	3	380,936	2.0	126,979
전 국	121	17,290,566	1.9	142,897

자료: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http://sanghobank.co.kr>.

〈 표 2-4 〉 상호저축은행의 규모별 영업실적

(단위 : 개, %)

규모	여신			
	저축은행의 수			구성비
	2001. 5	2002. 5	증감	
7,000억원 이상	2	2	0	1.7
5,000 ~ 7,000억원 미만	1	1	0	0.8
4,000 ~ 5,000억원 미만	5	4	-1	3.3
3,000 ~ 4,000억원 미만	4	5	1	4.1
2,500 ~ 3,000억원 미만	6	7	1	5.8
2,000 ~ 2,500억원 미만	7	5	-2	4.1
1,500 ~ 2,000억원 미만	12	13	1	10.8
1,000 ~ 1,500억원 미만	14	17	3	14.0
500 ~ 1,000억원 미만	34	31	-3	25.6
500억원 미만	36	36	0	29.8
합 계	121	121	0	100.0

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http://www.sanghobank.co.kr>.

第 2 節 他 金融機關과의 比較를 통한 不實債權發生要因 分析

상호저축은행의 총여신금액 중 소액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요인을 마케팅전략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볼 때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대출채권의 발생배경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대출금리

금융기관의 대출채원은 고객예탁금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마련된다. 이때 부과되는 금융비용을 조달금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 운영비, 적정수익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대출금리는 우수고객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고객의 신용등급, 상품별 가산금리를 추가해 결정하는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간 신용대출상품 대출금리도 약간 차이가 있다.

< 그림 2-1 >과 같이 금융권별 신용대출상품 대출금리는 은행이 연 7.1%에서 16.95%로 금융권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을 비롯한 타 금융권은 은행에 비해 조금씩 높은 편이며, 저축은행은 연 7.2%에서 60.0%까지 고객별 적용금리가 다양하다. 저축은행에 비하여 은행권이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조달금리의 차이는 물론 은행이 그만큼 우량고객 위주로 대출함으로써 대출부실율이나 연체율이 상호저축은행보다 낮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저축은행의 고금리는 은행권을 비롯한 타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고객들-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중심으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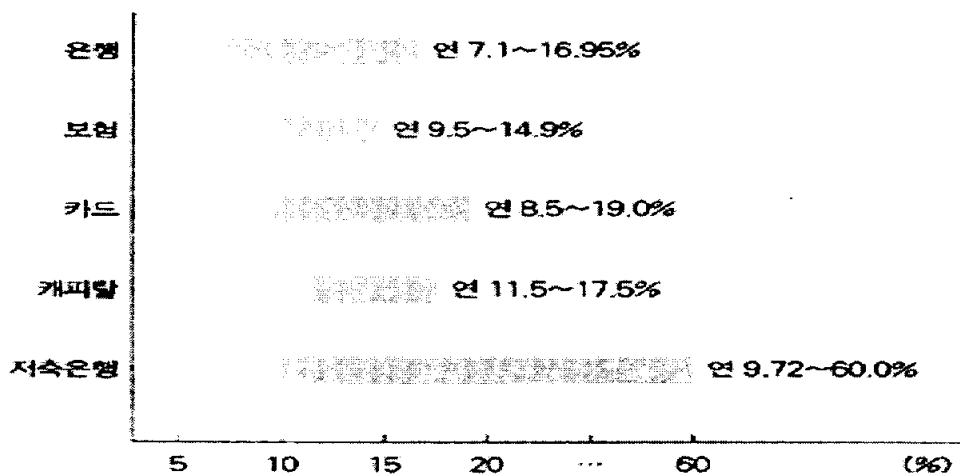
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대보증인 확보나 동산 및 부동산의 담보 제공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험비용이 반영된 고금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금리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출금리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축은행 신용대출상품의 이용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 대출한도

금융권별 신용대출상품 대출한도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같은 금융권이 라도 고객의 거래실적 등 여러 가지 평가변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최근에는 개인신용평점시스템을 구축하여 결혼여부, 주택소유현황, 직업 구분 등을 바탕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림 2-1 〉 금융권별 신용대출상품 대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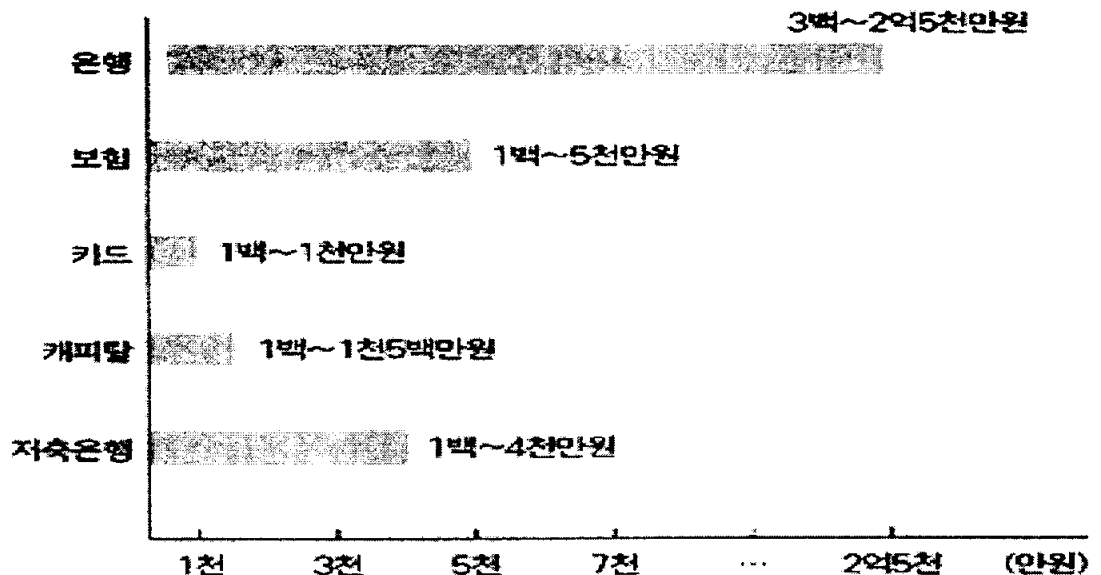


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http://www.sanghobank.co.kr>.

< 그림 2-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권별 신용대출상품 대출한도는 제 1금융권이 2억5천만원까지로 가장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고 있다. 이는 제 1금융권이 고객신용평점시스템 등을 통해 엄격한 대출심사를 거쳐 우량고객을 선별함으로써 그만큼 많은 금액을 대출하여 주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보험회사들은 은행보다는 적지만 자사 보험고객들을 위주로 5천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1백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분포되어 있어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의 소액신용대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 1금융권과 비교해 대출한도가 적은 것은 은행의 대출절차가 까다롭고 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만큼 낮은 금리에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고 있다.

< 그림 2-2 > 금융권별 신용대출상품 대출한도



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http://www.sanghobank.co.kr>.

3. 대출의 편리성

지금까지 고객이 대출하기 위하여 영업점(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방문을 통한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현재는 각 금융권별로 인터넷 및 ARS전화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실시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에게 대출금리 및 한도를 주요한 사항이지만 최근에는 대출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주요한 선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 1금융권은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의 예금조회나 계좌이체는 물론 대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대출이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사의 경우 인터넷 대출과 ARS전화를 통한 대출, 지점방문을 통한 대출을 함께 실시하고 있어 고객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는 대부분이 상품이 자사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이처럼 인터넷이나 ARS전화를 통한 무방문·무서류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캐피탈사는 인터넷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점방문과 일체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다. 대출신청에서 대출입금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인터넷에서 3분 이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대출절차가 매우 신속하고 간편한 편이다. 인터넷상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본인인증절차, 신용평점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대출한도를 조회하는 한도조회절차를 거치면 조회된 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대출금액을 신청하고 대출신청이 완료되며 희망 입금계좌로 대출금 입금이 이루어진다.

카드사의 경우에도 구비서류나 영업점 방문없이 ARS나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가능해 캐피탈사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편리하다.

이처럼 빠른 대출이 이뤄짐에 따라 소액대출 희망자들이 각 금융회사별로 크게 늘고 있다.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상호저축은행은 인터넷 뱅킹이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보급률이 낮다.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영업점 방문 대출이 아직까지도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웹스파드론처럼 인터넷을 통해 1시간내 대출이 가능한 상품, 화상대출이나 개인정보단말기(PDA)를 통한 대출, 영업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대출, 팩스를 이용한 대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등 고객의 대출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출모집인들을 통한 대출에서 부실채권의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십개의 상호저축은행으로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그 중에서 일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1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마련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상호저축은행 간의 시스템은 동일 신청인에 대한 확인이 계약일 기준 익일에 가능하므로 중복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기록과 연체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위험성이 있는 대출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출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항목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업계의 추세로 볼 때 그 간격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4. 대출대상 및 요건

신용대출상품의 대출대상은 각 금융기관에서 과거에 비해 크게 완화하였으나 금융권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도권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대금업이나 사채업의 공략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출가능한 고객은 제한적이다. 은행은 기존 거래고객 중 우수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엄격한 개인신용평점시스템(CSS)을 거쳐 대출결정과 한도 금리를 결정한다. 최근 신용등급이 높은 의사, 변호사, 교직원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소득자, 주부, 직업군인 등에 대한 대출도 확대하고 있다. 보험사에서는 대부분 자사 보험계약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나 연소득 일정금액 이상, 아파트 거주, 기혼여성 등에서 대출적격자를 심사해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카드 및 캐피탈사는 자사 우량회원이나 타 금융권 대출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전문직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상품이 판매되나 은행이나 보험과 비교하여 일정 연령이상의 내국인이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출제한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타 금융권에 비해 대출대상이나 자격요건이 가장 완화된 편으로 대금업이나 사채업과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타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전문직 종사자나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물론 신용카드소지자나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임직원, 의료비지출자, 미용사, 사채대환자, 신용불량거래 해지자, 납골당 구입자 등 대출대상이 넓은 편이다.

따라서 대출대상이나 요건에 있어서는 상호저축은행이 타 금융기관에 비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 리스크 관리

신용대출의 성행은 그동안 담보를 우선시하던 대출관행에 일대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은행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선진국형 여신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기존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관행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대부분의 은행에 도입되었다. 종전에는 개인이 대출신청시 직업등급표와 연소득 등 단순한 기준을 적용한 반면 CSS는 대출신청시 작성하는 인적사항과 직장, 소득현황, 재무상태 등 신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항목별로 점수화해 이 점수에 따라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금액 및 금리를 산정한다. 신용이 우수한 고객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업계도 CS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삼성생명만은 지난 2000년 4월 업계 최초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본적인 신용평가는 물론 자사가 보유중인 고객들의 보험건수, 보험금액, 보험거래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 자영업자 등 일반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이 쉽지 않은 고객도 보험실적을 반영한 CSS에 따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보, 대한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도 CSS를 통해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은행들은 또한 개인금융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가계대출 연체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은행별로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최고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금년에는 부실여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

이다. 한미은행은 지난 1월말부터 위험관리업무를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으로 이원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비자금융 리스크 관리팀을 신설, 본격 가동하고 있다. 1백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관리팀은 개인금융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의 사전예방기능과 사후 부실여신처리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고객성향에 따른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국민은행은 대출고객의 거래유형을 분석하여 평점을 매겨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인 행동평점시스템(BSS)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 부실여신 징후를 발견하여 연체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CSS도입에 따른 신용대출 위축이 지적되면서 금융권은 대출위험을 줄이면서 실적을 늘릴 수 있는 신용대출모형 개발에 나서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신형모델이 MSS(Marketing Scoring System)로 대출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 채권회수까지 한꺼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중인 선진국형 신용정보회사(CB : Credit Bureau)설립은 신용대출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비해 상호저축은행업계는 리스크관리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서 CSS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몇 년 내에 타 금융권과 대등한 수준까지 근접할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IMF 이후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이 급속히 팽창하고 대출시장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 각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담보대출보다는 신용소액대출의 비중이 늘어나며, 금융권별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1년 말부터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한 상호저축은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출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상호저축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은행 가운데 국민과 한미은행 그리고 신한금융지주회사가 할부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해 대금업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은행이 진출할 경우 소액급전대출 취급을 통해 20~30%대의 금리로 소액신용대출시장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20~30%대의 금리는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규모나 조달금리, 신용정보자료 축적 및 분석능력에서 상호저축은행보다는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대금업체의 국내진출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 대금업체들이 일반 신용대출금리를 연 30%이상 내려 현재의 평균 연 131%(월 10.8%)에서 연 97%(월 8.1%)로 인하하는 등 국내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도 저축은행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저축은행은 전술한 것처럼 대출금리나 한도, 대출의 편의성 측면에서 타 금융권에 비해 크게 유리하지 못하다. 그런데도 저축은행의 신용소액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1~3백만원 소액신용대출을 특화하여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누구에게나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자격요건을 완화한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도 언젠가는 타 금융권에 의하여 장점으로써의 매력을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현재의 장점에 만족하기보다는 그동안 경쟁력이 떨어졌던 부분에 대한 개선과 대응력을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출편의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전략과 부실채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경우인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회수방안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第 3 章 相互貯蓄銀行의 不實債權 實態分析

第 1 節 相互貯蓄銀行의 不實債權 定義와 發生原因

1. 부실채권 정의

부실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건전성분류상 회수의문채권과 추정손실채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회수의문채권이라 함은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담보부족채권을 말한다. 또한 추정손실채권이란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말한다.¹⁾

2. 부실채권 발생원인

상호저축은행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크게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채무자인 고객의 책임 사유로 인한 경우이다.

둘째, 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의 책임사유로 인한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고객의 책임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채무자가 대출금 변제능력이상의 채무가 발생되어 사실상 지불능력이 상실된 경우와 변제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대출금 상환이행을 회피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볼 수 있겠다.

1) 염기부(2000), 금융업채권관리, 홍익재.

3. 상호저축은행의 책임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회수에 관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타난다.

(1) 상호저축은행의 주의부족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대출거래를 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계약서 기재사항의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인적사항의 확인시 본인 확인 및 보증인의 실명증표 장구 미비 및 고객의 필수 기재사항인 대출금액 및 인적사항의 직원대필로 후일에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보증인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유무의 미확인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 신속 적절한 대응능력 부족

대부분의 불량 거래고객들은 연체초기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건수가 많아진다는지 여러 신용카드로 빈도가 높게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일단 부실발생 초기단계로 판단하여 초동단계에서부터 예금 및 동산압류, 부동산 가압류,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사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처능력이나 정보수집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회수시기를 놓쳐 버림으로써 회수 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3) 비효율적인 채권관리

대부분의 상호저축은행에는 채권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채권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으나 책임의식의 결여, 비성과급 체계,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아직까지 수기로 관리파일에 기재를 하면서 각 채무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 표 3-1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명 최대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인당 관리채무자인수 500명이상, 금액상으로는 180억 넘는 채권금액의 회수를 관리토록 하는 비효율적인 채권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표 3-1 > 주요 상호저축은행들의 채권관리현황

(단위 : 억원, 명)

상호명	부실채권규모 (소액채권 포함)	관리부서인원 (콜센터 인원 포함)	1인당관리비용	1인당관리인원
S상호저축은행	450	7	150	10,000
B상호저축은행	630	8	105	6,200
H상호저축은행	270	5	90	4,000
D상호저축은행	370	4	185	7,500

자료 : 미래신용정보회사 (2002), <http://172.31.1.100/login.jsp>.

第 4 章 相互貯蓄銀行 不實債權의 效率的 回收方案

第 1 節 業務節次上 改善方案

1. 부실채권의 정리

여기서 밝히는 부실채권의 정리에 관한 내용은 법리론적인 면이 아니라 법리론을 구체적으로 응용한 것으로 각 상호저축은행의 조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난다. 각 상호저축은행은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부실채권의 정리내용은 4가지로 크게 나뉘 볼 수 있다.

(1) 연체이자의 감면

연체이자를 기한내 이율을 적용하여 받는다든지 회수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원금이하의 금액으로 채무변제종결을 할 경우 연체이자 전액이나 일부분을 감면해 주는 조치이다.

한편 이 조치는 이자와 원금의 정상적인 상환자들의 측면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오히려 대출금 이자는 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불건전한 사고를 갖게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부실채권의 정리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2) 회수순위의 변경

회수순위의 변경이라 함은 채권의 회수순위를 변경하여 비용, 원금, 이자의 순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법적 비용은 전액회수로 가장 최우선의 변제순

위로 삼고 있는 것이 부실채권회수의 사례에서 분석되고 있다.

(3) 채권의 상각

추정손실채권을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대손충당금과 대체정리하거나 손실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실채권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필수적인 회수절차상의 방안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채권상각의 의의

법적절차 등 모든 회수절차를 강구하였으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자산계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손실처리하는 것을 채권대손상각이라고 한다.²⁾

대손상각처리 함으로써 대출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에서 차감하는 상호저축은행 내부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상각후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사후관리는 계속한다든지 외부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를 하여 부실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2) 채권상각사유

상각대상채권에 대한 사유로는 아래와 같다.

- ① 채무자 및 그 상속인 기타 채무관계인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염기부(2000), 금융업채권관리, 홍익재.

- ② 채무자 등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③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는 경우
- ④ 채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임의 경매, 강제경매 등의 법적 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⑤ 기타 사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채권상각절차

- ① 채무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실시 및 소명자료의 징구
- ② 부실채권의 상각적부심사 수감 (자체 및 상위부서의 감사)
- ③ 이사회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의결
- ④ 전결권자의 결재
- ⑤ 대손충당금 인출 및 해당채권자과의 대체기표
- ⑥ 금융부실거래자 등록 및 특수채권으로 보유

이상의 상각처리절차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그 상각적부에 대하여 사전에 자체심사 및 전결기준에 의한 상위감사부서의 적부판정을 받은 후 이사회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의결을 (전결기준초과시)받아야 한다.

(4) 특수채권의 포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행사를 포기하고 대출신청원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경우는 담당부서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정책상 문책의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방안이다.

개인이나 사기업계열사의 상호저축은행의 몇몇 사례에서는 임원들의 자의(自意)로 자기들의 지인들에 대한 특수채권의 폐쇄를 지시하는 등의 병폐도 발견되곤 하는 문제점이 있다. 강력한 내부 감사기준과 외부 독립적인 감사인의 상시체제로 비리의 발견 즉시 강제적인 조치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1-1. 부실채권의 정리대상 채권

(1) 상각대상채권

손실로 처리하게 되는 대상이 되는 부실채권은 아래와 같이 나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경매, 강제집행 등의 법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권이 무효이 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3)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
- 4) 상급감독기관의 감사결과 상각토록 지시된 채권
- 5)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법률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2) 회수순위 변경 대상채권

부실채권 회수를 위하여 변제금을 비용, 원금, 이자순으로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총채권액에서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부족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의 상각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는 채권을 말한다.

(3) 연체이자 감면 대상채권

법적 절차에 의한 회수대금 및 변제금액이 총채권액에 미달하여 그 잔존채권액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 잔존채권액을 이자감면으로 전액회수할 수 있을 때에는 감면금액 기준으로 채권의 상가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는 채권을 말한다.

2. 부실채권회수의 효율적 방안

(1) 연체관리의 방법

대출고객이 정해진 원리금 상환일자에 변제를 안 할 경우 부실채권으로의 발전에 대비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예방하는 방법도 대출채권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상의 방안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대출연체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사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적인 방안을 나누어 연체관리의 관점에서 제시해 보고 전체적인 기간흐름별로 어떻게 연체관리를 하여야 하는지를 성공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제시하겠다.

1) 사전적 연체관리 방안

대출신청자에 대한 사전 심사강화로서 본인확인 및 실명증표 징구 철저, 소득원의 확인, 신용불량거래의 유무확인, 연대보증인의 입보시 보증인의 재능력의 증명서류 징구(소득 원천징수명세서, 과세증명원), 대출신청서류의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필수기재사항 (대출금액, 인적사항, 대출사실인정확인란)에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당일 업무마감 후 일일감사를 실시하여 타 대출부서 이외의 직원들의 권한 아래 대출서류의 미비사항 여부 및 서류상 기입사항의 자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비사항 발생시 상위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대출담당자로 하여금 늦어도 2~3일내로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자필이 아닌 대필인 경우 고객이나 연대보증인의 양해를 구해 필히 자필로 기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감사업무를 일일감사, 월별감사, 분기감사로 나눠 기간별로 미비사항의 확인 및 보완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설명수령필란"이라는 공간을 대출신청서양식에 필히 확보하여 자주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으로서 연체발생시 연체이율 발생 및 부과여부 또는 법조치 가능여부를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설명수령필란에 기명날인을 받아 사후에 분쟁발생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호저축은행들간의 경쟁적인 대출영업으로 연체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대출신청을 마쳐 사후 연체발생시 높은 연체이자율에 대해 각종 소비자단체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서류의 신빙성 검토이외에 연락처 확인, 타 금융기관 거래사실 실적검토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을 설정함으로써 실적위주 대출 및 무분별한 대출취급을 지양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 신용도와 관련된 관리시스템 설치방안을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2) 사후적인 연체관리 방안

① 콜센터 운영: 대부분 여직원으로 운영하며 단기연체관리(1~3개월)

가. 전화, FAX, 전보, 안내장 등을 이용한 해피콜, 연체관리
업무 분장

나.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로 구분하며, 아웃바운드의 경우
연체고객을 매월 500~1,000명 관리

다. 하루 적정콜수는 인바운드의 경우 200~300콜, 아웃바운드의
경우 120~200콜로 제한한다

② 채권관리부서의 채권추심 담당

가. 전화독촉, 서면독촉: 콜센타보다 강한 강도로 변제를 독촉한다

나. 신용조사: 재산조사(은닉재산 포함), 채무자의 변제능력조사,
거주사실조사 등의 활동

다. 법적조치지원 및 방문접촉 시도

③ 법적 조치의 실시

가. 재산조사: 채무자 및 보증인(연대보증인 있는 경우)소유의
재산파악

나. 보존처분: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동안 채무자는 고의로 재산을 도피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가압류, 가처분)

다. 채무명의: 대출이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출금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획득해야만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채무명의에는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이 있다.

라. 강제집행: 채무명의를 득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채권

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급여나 청구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3) 기간에 의한 연체관리 방법

국내 상호저축은행중 비교적 성공적인 채권관리업무 Flow로 인정받는 한업체의 사례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표 4-1 >와 같이 P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관리부서내 콜센타 직원과 일반관리직원으로 분류되어 기간별로 100일까지 관리를 담당한다. 주로 전화, 핸드폰의 문자메세지, 연체독촉장 우편물 발송 등의 수단을 이용해 여성 직원 위주로 단기연체자들의 부실채권추심을 관리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자들의 대다수가 연령층이 20, 30대이며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결과 최소 몇 개의 연체사실과 신용불량의 등록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 표 4-1 〉 P상호저축은행의 연체관리 현황

구 분	연체일수	채권내용	독촉방법	내 용	담 당
임 의 회 수	1 ~ 5일	채권초기	CMS, SMS	자동이체, 지불의뢰 문자메세지	연체센터
	6 ~ 25일	채권초기	전화, CMS	지불의뢰 녹음전화 발송	연체센터
	26 ~ 30일	채권중기	전화, 전보	연락불가자 주소지로 전보발송	연체센터
	31 ~ 45일	채권중기	전화, 방문	고객상태확인, 지불능력 확보	연체센터
	46 ~ 60일	채권중기	전화, 문서 방문	이자납입안내장 발송, 강한독촉, 불량거래 유무체크 (1차등록)	연체센터
강 제 회 수	61 ~ 70일	채권후기	TM, DM, 방문	최고장발송, 방문조사, 가족확인	연체센터
	71 ~ 80일	채권후기	TM, DM, 방문	가족 최후통보, 법적조치 준비	연체센터
	81 ~ 100일	채권후기	TM, DM, 방문	최고장발송(2차 불량거래등록)	연체센터
	101~120일	연체채권	TM, DM, 방문	법적회수 이관	전문회수팀
	121~180일	연체채권	전화, 방문	전문회수팀 방문	전문회수팀

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http://www.sanghobank.co.kr>.

위 〈 표 4-1 〉 와 같이 P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체발생 초기 대처방법중 대상자에 대한 신용조회나 상환능력의 확보를 위한 조사업무가 부족하며, 45일 이후 불량거래 유무를 확인하는 등 느장대응으로 오히려 부실규모를 더 커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 표 4-2 〉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자들의 연령분포도

2002년 12월 21일 기준

연령층	구성비율 (%)
20 - 30 세	67
31 - 40 세	19
41 - 50 세	3
51 - 55 세	1

자료 : 미래신용정보(2002), <http://172.31.1.100/login.jsp>.

※ 전국 12개상호저축은행이 미래신용정보에 의뢰한 채무자리스트 기준임.

다른 금융기관의 연체자들과 같이 요즘 연체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전화상담이나 우편물의 수령으로 연체 대출금의 상환의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연체 채무자들이 < 표 4-2 >에서와 같이 20 ~30대에 집중되어 있고 방문독촉의 실시도 보통의 경우 30일 이후에 고려하는 업무관행의 이유로 연체자들로 하여금 소재지를 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채권관리부서 내 콜센타의 인원을 줄이고 일반관리부서의 인원을 증원하고 연체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연체자를 접촉하고 회수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직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나 호봉제로 묶어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 추심활동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기본 급여 외에는 회수금액별 성과급제로 전환한다면 직원들의 추심활동이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성과급제도의 전환효과와 급여체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할 필요할 것이다.

P상호저축은행의 경우와 달리 외부 신용정보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채권관리의 업무를 아웃소싱을 의뢰하는 제휴를 맺는 방안이다.

채권관리부서의 인원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용정보사의 채권관리시스템을 상호저축은행내의 시스템에 이전 설치하여 연체발생채권의 전 업무를 관리를 통해 회수해 주는 방안이다.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만 신용정보사에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직원들의 소속과 급여체계는 외부 신용정보사로 인수되어 성과급 체계로 운영된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에서는 비용의 부담도 덜게 되면서 채권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체계적인 채권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각 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의 신용정보회사가 국내에서 아직 몇 개 업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몇몇 카드회사, 유통업체,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는 제휴를 통한 채권관리 업무를 아웃소싱업체에 맡기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제휴를 통한 업무효율화의 전략으로 갈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

〈 표 4-3 〉 새로운 채권관리방안 정리

기 간	연 체 관 리 (방안 1)	구 분	제 휴 영 업 (방안 2)
30일 이하	-연체자 거주지 및 연락처 파악 및 확인 -콜센터에서 독촉T/M, D/M -연체자 재산조사, 신용조사	장 점	-관리인원비용 절감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채권관리의 전산화
30일 이상	-전문회수팀 이관후 회수 계획 수립 -법적회수절차 준비 및 실행	단 점	-회수수수료의 부담 -고객정보관리누출 우려
기타사항	직원급여를 기본급+성과급 체계로 전환	기타사항	채권관리부서직원의 소속 및 급여체계의 전환

3. 부실채권발생시의 업무절차 방안

(1) 부실채권발생시 업무절차 제안

1) 신속한 재산파악 및 보전조치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신속히 파악 후 재산보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소재 파악후 변제 방법 상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비거주시에는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통해 소재를 파악한 후 임의변제를 설득하거나 분할납부로 유도하여야 한다.

임의변제의 한 방법으로 대환론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원대출신청시 입보했던 연대보증인들의 변제능력 부재시 강화된 조건에 맞는 연대보증인들을 새롭게 입보하여 연체금 및 범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대출형식으로 바꿔주는 변제방법이다. 새 연대보증인의 재정능력의 확인없이 서류상으로만 발생하는 대환론이라는 변제방법은 또 다른 부실채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실채권 회수방법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도록 연대보증인들의 변제능력 유무확인을 통한 추심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은 관리인원수로는 도저히 대출발생건수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감사의 정기적인 실시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내부업무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채권회수 계획수립

채권종류(단기, 중기, 장기연체), 채무자 유형, 소득원, 회수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을 하고 주간, 월간별로 점검을 통해 계획의 수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직 상호저축은행 대부분의 채권관리부서에서는 수기로 채권관리파일을 정리하고 경과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록의 장기보존 곤란, 정보의 공유불가, 채권회수활동 평가의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각 상호저축은행들은 개발 및 관리비용의 부담으로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채권관리시스템의 개발프로젝트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협의되고 개발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제 3장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일자에 다수의 상호저축은행에서 복수로 소액신용대출을 신청하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 각자 대출승인여부를 고려할 수 있어 부실채권의 발생을 조기에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채권회수 착수

- ① 채권보전조치 :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 대위권, 취소권 행사,
물적 및 인적 담보 취득
- ② 임의적 수단에 의한 회수 : 독촉으로 임의 이행유도,
급여압류, 대물변제, 변제공탁, 채권양수 등
- ③ 강제적 수단에 의한 회수 : 담보권 실행, 소송제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 ④ 심리적 압박 수단에 의한 회수 : 형사고소, 재산관계
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등

4. 신용평점시스템의 도입

(1) 신용평점시스템의 도입배경

IMF 경제체제이후 여신관행혁신방안이 대두되었다. 여신관행혁신과제로는 크게 마케팅, 여신심사, 사후관리 및 인력운영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여신관행혁신과제는 객관적인 신용위험의 평가, 우수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과학적인 여신리스크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여신관행혁신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신용평점시스템의 도입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 차원에서 이 시스템의 채택을 위해 전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아직 긍정적인 답변들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향후 부실채권발생의 조기진단 및 사후의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 채택되어야 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어떤 시스템인지를 알아보고 그 적용방안을 제시해도록 하겠다.

(2) 신용평점시스템의 종류

신용평점시스템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신규고객의 여신심사를 지원하는 신청평점시스템(Application Scoring System : ASS)과 기존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하는 행동평점시스템(Behavioral Scoring System : BSS) 으로 나눌 수 있다.

신용평점시스템에서 평가하는 평가항목은 주거관련, 직장관련 및 재산관련 정보가 기입된 신청서정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되는 신용정보항목 및 기타 외부정보로 구성된다. 신청평점은 거래이후 일정수준 이상의

연체를 발생시킬지 여부를 예측하는 점수이며 그에 따라 거래여부를 결정하고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처리절차는 자동화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오류를 감소시킨다. 신청평점시스템에서 제공된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을 통해 여신의 승인여부, 여신한도 및 금리를 차별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행동평점시스템에서 평가하는 평가항목은 크게 여신거래정보(실적 및 연체정보), 신용정보 및 기타 외부정보로 구성된다. 고객의 거래기록으로 매달 행동평점을 계산하고 향후 3~4개월 내에 일정수준 이상의 연체를 발생시킬지를 예측한다.

국내에서는 신청평점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행동평점시스템의 도입이 보다 손쉽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거래대상을 선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평점시스템만으로는 위험률을 절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위험률을 나타내는 행동평점은 한도를 조정하거나, 연체중인 고객에 대해서는 채권관리방법을 조정하여 고위험 고객에 대한 관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그림 4-1 >은 신용평점시스템의 업무흐름도를 설명한 것으로 크게 다섯 가지의 단계로 구분된다. 제 1 단계에서는 접수단계이다. 접수단계에서는 기본정보의 입력 및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단계로 향후 신청고객의 특성 및 마케팅 관리를 위한 단계이다.

제 2 단계는 상담단계이다. 상담단계에서는 주로 제반법규에 따른 여신승인 불가자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1차 거절대상자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신용점수에 관계없이 거절이 이뤄진다.

제 3 단계는 스코어링단계이다. 스코어링단계에서는 고객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평가하는 단계로 신청정보, 신용정보 및 외부정보를 활용하여 스코어를 산출한다. 산출된 스코어에 따라 자동으로 고객의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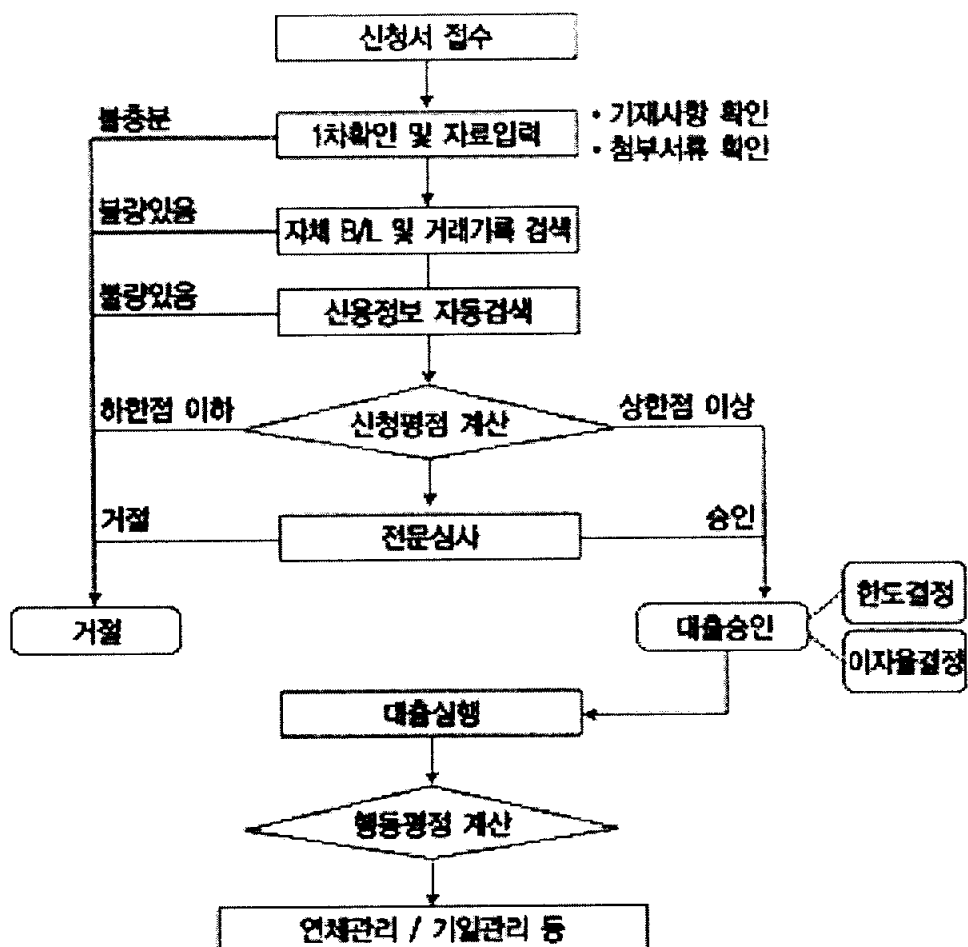
거절 여부가 판별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 고객의 여신한도 및 금리가 결정된다.

제 4 단계는 심사단계이다. 심사단계에서는 스코어링에서 판정하기 힘든 고객에 대하여 심사자가 전문심사를 통하여 고객을 승인/거절하는 단계이다.

제 5 단계는 실행된 고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 표 4-4 >는 현재 추진 중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차원의 여신관행혁신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상호저축은행 자체적으로 파악한 여신관행의 문제점들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향후 각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관리의 전략수립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 그림 4-1 〉 신용평점시스템의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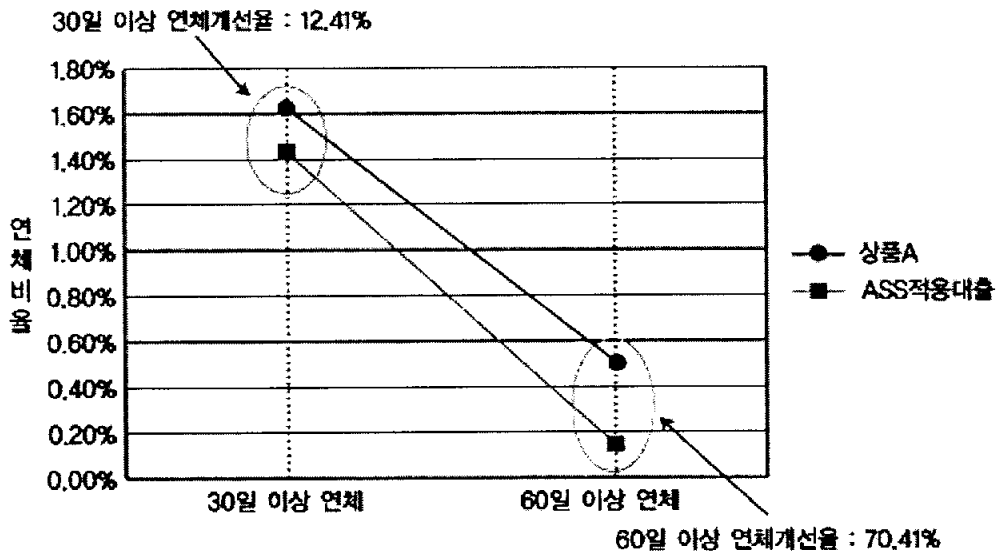
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http://www.sanghobank.co.kr>.

〈 표 4-4 〉 여신관행 혁신방안

혁신과제		주요내용	대응방안
마케팅 개념의 여신상담	수요자 중심의 여신상담	-Tarket Market 설정 -전문심사역 담당	-Scoring 및 계량화모델이용 우량고객 확보 -업종별, 분야별 전문심사역 지정
	상담내용의 기록유지	-상담내용의 기록유지 -일관성 확보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담당자 별 업무관리 및 DB축적 -위 정보 이용 개인별 업무성과 관리
여신심사 기능강화	신용평가 등급제 도입	-신용평가모형개발 -신용평가등급기준마련 -신용평점기준마련 -신용평가등급활용방안	-Scoring시스템 이용 신용평가등 급 개발 -행동평점에 의한 평가등급 자동 조정 -여신신청시 한도 자동배정 및 가산금리 적용판정 -평점변화에 따른 한도 및 금리 조정
여신 사후관리 기능강화	Loan Review 시행	-Loan Review기준 마련 -Loan Review 결과활용 방안 마련	-규정 정비 및 보완 -행동평점에 의해 산정등급에 따른 조정
	조기경보제 시행	-부실징후여신을 조기 선정관리하기 위한 부 실예측모형 구축	고객별 위험이 반영된 평가지표 와 가중치를 감안한 행동평점모 델 구축과 전략모듈을 연결한 조 기경보시스템 개발
여신업무 인력운영 효율화	여신업무 집중화	-기일관리, 단기연체관 리 등 여신업무의 본부 집중화	-조직개편 -영업점별 업무취급범위 설정
	여신정보 시스템 구축	-여신정보 종합DB 구축 -신용리스크 종합관리	-종합여신시스템 조기 구축 -개인/그룹별 신용리스크수용 범위 설정 및 운영

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http://www.sanghobank.co.kr>.

〈 그림 4-2 〉 신용평점시스템 적용후 동일신청건수에 대한 신용대출
연체현황



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http://www.sanghoban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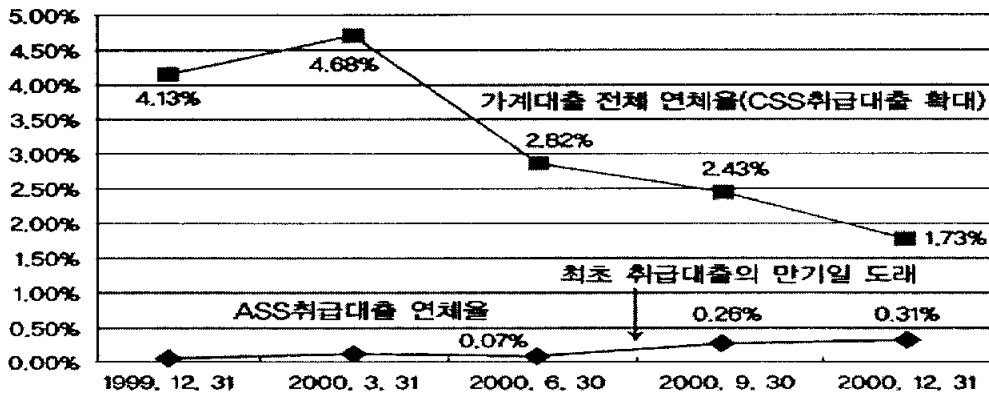
(3) 신용평점시스템의 적용 기대효과

국내 금융기관에서의 신용평점시스템 도입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신용평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들은 기 도입된 금융기관의 연체율 개선효과 및 신규고객 유치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그림4-2 >는 신용평점시스템 적용 후 기존 여신 상품과 비교한 결과 30일 이상 연체율에 대하여 12.4%의 개선효과, 60일 이상 연체율에 대하여 70.4%의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 그림 4-3 >은 2000년 이후로 만기건을 포함하여 연체율을 나타낸 것으로 가계대출 및 신용평점시스템의 적용비율의 증가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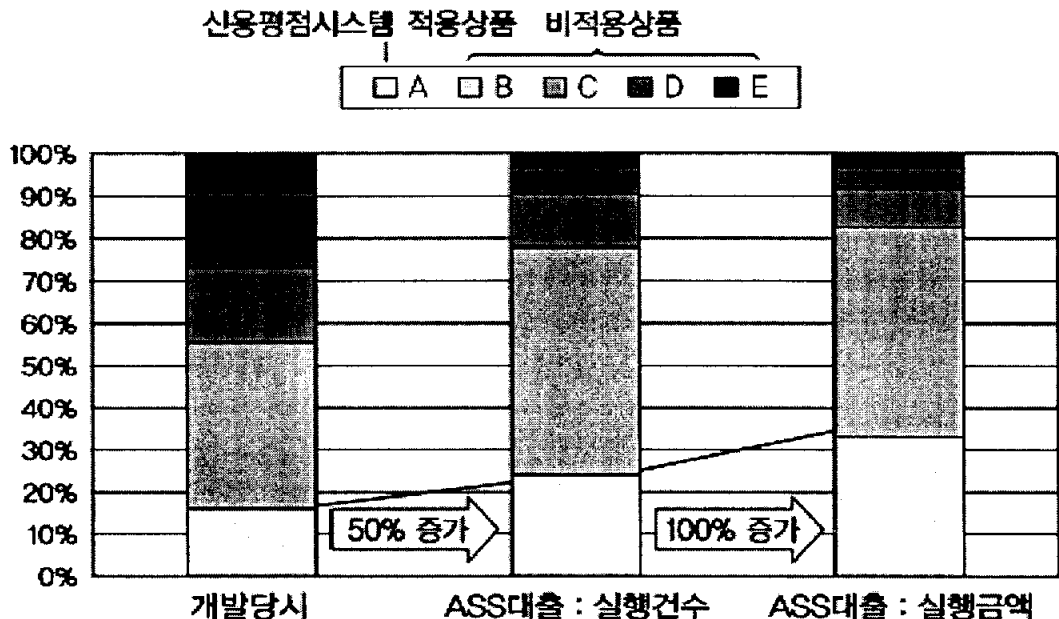
< 그림 4-4 >와 <그림 4-5 >는 신용평점시스템 적용 전과 후의 여신 실행건수 및 실행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월 평균 2,000건에서 4,500건으로 약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우량등급인 4등급이상의 경우 28%에서 46%로 60%정도 증가되었다. 또한 금액 기준으로는 적용 전 10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그림 4-3 > 신용평점시스템 적용후 기간별 연체율 현황



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http://www.sanghobank.co.kr>.

〈 그림 4-4 〉 신용평점시스템 적용 후 실행건수 및 금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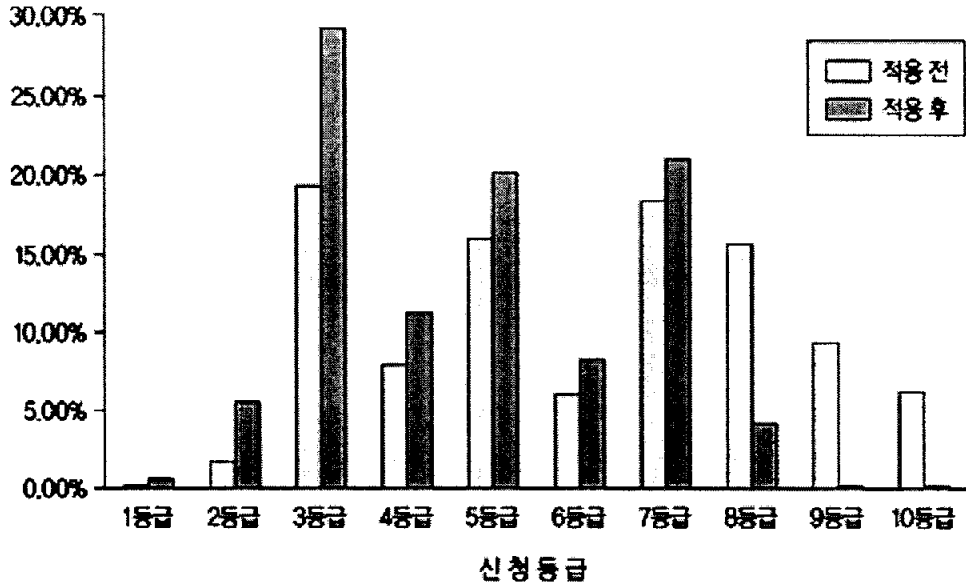


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http://www.sanghobank.co.kr>.

(3) 상호저축은행으로의 적용방안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신용평점시스템은 여신/용자 시스템 내에 위치하여 자체적인 신용평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일반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 개별적으로 신용평점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방식에 의한 신용평점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ASP방식에 의한 신용평점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은 네트워크망의 구축이다.

〈그림 4-5〉 신용평점시스템 적용 전/적용 후 등급별 분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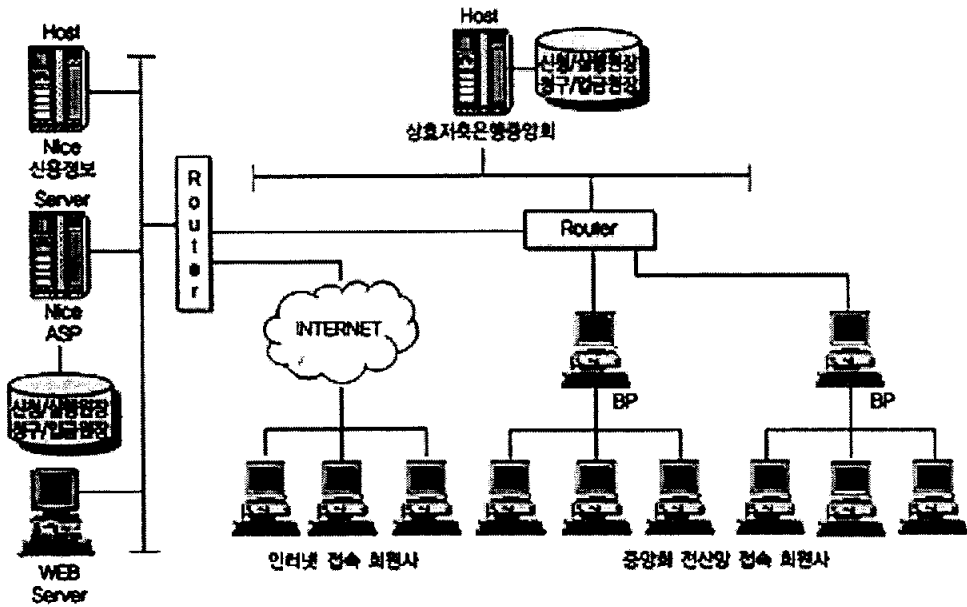


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http://www.sanghobank.co.kr>.

현재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간에는 종합금융정보시스템 (IFIS) 네트워크망이 구축되어 있다.

< 그림 4-7 >은 ASP방식의 신용평점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개별 상호저축은행이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용평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그림 4-6 > ASP방식의 신용평점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http://www.sanghobank.co.kr>.

ASP방식에 의한 신용평점시스템 개발시 개별 상호저축은행별로 차별화된 운영전략이 반영되어야 한다. < 표 4-5 >는상호저축은행별 차별적인 운영전략의 사례이다. 아직까지 국내 대부분의 상호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아닌 대출상품별로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 표 4-5 >와 같이 A상호저축은행은 6등급까지, B상호저축은행은 7등급까지 차별적인 승인전략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여신한도 및 금리도 상호저축은행별로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표 4-5 〉 ASP방식에 의한 운영전략 사례분석

AS 등급	B 상호저축은행			B 상호저축은행		
	승인	여신한도	금리	승인	여신한도	금리
1 등급	승인	300만원	14%	승인	200만원	14%
2 등급	승인	300만원	15%	승인	200만원	14%
...	...	...	...	...	...	...
6 등급	승인	200만원	15%	승인	200만원	16%
7 등급	심사	150만원	19%	승인	200만원	18%
8 등급	심사	100만원	20%	심사	200만원	20%
9 등급	거절	-	-	심사	200만원	24%
10 등급	거절	-	-	거절	-	-

자료 : 미래신용정보 (2002), <http://172.31.1.100/login.jsp>.

(4) 신용평점시스템의 향후 개선방안

신용평점시스템의 핵심인 신용평가모형은 평가항목에 따라 모형의 예측력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신용정보 및 외부정보의 활용은 신용평가모형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의 신용정보 및 외부정보의 교환은 아직까지 불량거래정보 위주이지만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거래내역정보와 같은 우량거래정보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교환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신용평점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第 2 節 制度的 不實防止方案

1. 대출모집인의 등록제 실시

사금융의 폐해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흡수하고 점포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소매금융 활성화를 통한 영업이익 증대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제도를 일부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저축은행이 대출모집대행업체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하였다.

상호저축은행들의 수탁업체를 통한 소액신용대출 취급은 사금융의 제도권 금융회사로의 흡수와 영업이익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수탁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징구하여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부작용도 많았다.

200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객으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징구한 수탁업체와 피라미드식 대출모집업체들을 수사한 결과 57개 업체의 범법행위를 밝혀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였고 이들 업체는 중앙회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1) 문제점

첫째, 부당한 수수료 징구에 따른 업계 공신력 하락이다. 하부 대출모집인은 상호저축은행과 약정된 수수료 외에 고객으로부터 대출알선명목의 수수료를 부당 징구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업계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다.

둘째,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중채무자 양산 및 금융기

관 부실화 초래이다.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익홍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다중채무 알선과 저축은행 대출금액의 3~4%에 해당하는 고수수료 지급은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초래되고 있다. 물론 알선기관이 불법대출발생시 전액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계약을 맺어 비실명 거래 발견시, 또는 본인 자필로 서명 날인되지 않은 대출계약서의 발견시 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맺는 추세다.

그러나 알선기관의 영세화와 검증되지 않은 기관의 불법알선 영업후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질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만 넘어가는 현상이 되고 있다.

셋째, 과당경쟁으로 일부 수탁업체간 또는 저축은행간 마찰소지가 있으며, 향후 예금모집업무까지 취급이 허용되는 경우 예금형령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대출모집인제도의 필요성

신용상태가 취약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소액신용대출시장에 일본계 대금업체의 진입, 은행권의 소매금융 강화, 씨티은행 및 국민은행 등의 대금업 진출로 소액신용대출시장이 급격히 잠식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타 금융권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점포설치 제한으로 인해 대출거래선 확보를 위한 대출모집대행업체와의 업무위탁계약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3) 은행권의 대출모집제도와 비교

< 표 4-6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제1금융권중 각 은행들은 대출 모집방식은 퇴직직원 등을 대출모집인으로 위촉하여 대출소개 등을 전담하는 방식(개인대출모집인)과 부동산중개업소 등과 대출중개 등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업체대출모집인)으로 구분된다.

은행권의 대출모집인제도는 점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 및 HSBC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은행에서는 하나은행이 지난해 초 처음으로 대출모집인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280여명 이상이 활동하는 등 국민, 조흥, 우리, 신한 등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모집인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실무에서는 아래 < 표 4-7 >와 같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되지 않고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고용할 뿐만 아니라 중앙회

< 표 4-6 >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현황

2002년 3월 기준

구 분	개인대출모집인	업체대출모집인
업 체 형 태	퇴직직원	부동산중개업소 등
계 약 방 법	업무위촉계약	업무제휴계약
은 행 수	11	16
모 집 인 수	1,400여명	22,000여명
수수료(%)	대출금액의 0.2%	대출금액의 0.2%
대출취급실적(2001년중)	3조9천억원	7조3천억원

자료 : 은행연합회(2002), <http://www.kfb.or.kr/>.

교육참석도 영업실적에 밀려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출 발생 후 내부적으로 일일, 월별, 분기별 감사실시제도의 부재로 자격미달자들의 상호 맞보증 대출발생 및 같은 일자 수십 개의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을 발생시킨 후 장기연체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현실이다.

실적위주의 영업을 상호저축은행간 펼치더라도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제삼 각기식의 무분별한 대출은 지양하고 맞보증 대출시 신용상태 및 경제능력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스템상으로 대출발생 즉시 상호저축은행간에 동시에 조회가능토록 하여 신청인의 대출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이 발생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상호저축은행의 내실 있는 대출과 대출모집인들의 공격적인 대출영업실적과는 상충되는 관계로 조화있는 영업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표 4-7 〉 금융회사별 개인 대출모집인제도 운영현황

구 분	저축은행	은 행	신용카드사	보험회사
계약형태	고용계약	위촉계약	위촉계약	위촉계약
자격요건	금융기관 1년이상 종사자로서 퇴직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중 앙회 교육을 이수 한 자	없음	없음	보험모집연수과 정 이수 또는 1 년 이상 보험관 계업무 종사자
등록	중앙회	없음	여신협회	금융감독원 (협회위임)
복수계약여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수수료	대출금액의 3 ~ 4%	대출금액의 0.2%	계약건당 2 ~ 3만원	보험수익료의 0.5 ~ 0.7%
주요업무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서 접수 및 전달	대출상품 소개, 접수	카드채권 접수	보험계약 체결 중개

자료 : 금융감독원(2002), <http://www.fss.or.kr>.

(4)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도 방안

< 표 4-8 > 과 같이 현재 실시토록 되어 있는 대출모집업체제도가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닌 관계로 각 상호저축은행의 사례에서는 바로 부실채권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이다.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계없이 대출건수와 금액에 집착하게 되는 대출모집인제도의 법률화로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르는 실제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 제도적으로 조기에 부실채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각종 사항의 보고 대상처를 금융감독원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대출모집인 등록자격요건

대출모집인이 되려는 자는 금융기관 1년이상 종사자로서 등록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퇴직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대출모집인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중에 있는 자
- ④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⑤ 금융질서 문란자로 인정되는자 (예: 징계면직된 자, 명의도용자, 개인정보 유출자, 이중계약자, 카드깡/연체대납 등의 전력자)

〈 표 4-8 〉 금융회사별 대출모집업체제도 운영현황

구 분	저축은행	은 행	신용카드사	보험회사
업체형태	법인(주식회사)	부동산중개업소	대리점	대리점
계약형태	업무위탁 계약	업무제휴	업무위탁 계약	대리점계약
자격요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사금융업체가 아닐 것	없 음	없 음	보험대리점시험 합 격 혹은 2년이상 보 험관계업 종사자
등 록	중 앙 회	없 음	여신협회	금감원
복수계약 여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수수료	대금금액의 3-4%	대출금액의 0.2%	계약건당 2-3만원	보험수익료의 0.5-0.7%
주요업무	대출상품 소개, 대출신청서 접수	대출상품 소개, 대출추천서 작성	카드신청 접수	보험계약체결 대리, 보험료 징수

자료 : 금융감독원(2002), <http://www.fss.or.kr>.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일 현재 대출모집업무 기종사자중 자격미달자는 6월이내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이나 증명서를 발급하여 감독기관의 요구시 제시되어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출모집인 등록후 대출모집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출모집인 자격요건을 다시 충족하여야 한다.³⁾

2) 수탁업체의 등록요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대행업체가 되려는 자는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법인(주식회사)이어야 하며, 사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아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계간지, 통권 제 56호, 여름호.

니어야 한다. 수탁업체가 신규 대출모집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매월 5일까지 대출모집인 등록신청을 중앙회에 제출하여 다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수탁업체가 등록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채권매매, 유가증권 매입, 팩토링, 할부금융, 자금지원, 대출지원, 대금업 등 사금융업을 영위하는 인상을 주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사금융업체로 간주되어 등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일반이용고객들의 신고제도의 활용과 보상제도나 감독기관의 수시 감독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탁업체명에 00 종합금융, 팩토링, 캐피탈 등이 있는데 이중 종합금융은 종합금융회사법 제 6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의해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직 일반인들은 이런 명칭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유사업체의 형태인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한 정부기관이나 각 금융기관 협의회 차원에서 일반인을 대상 공익성 광고를 실시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예방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팩토링, 캐피탈, 파인낸스 등의 상호는 유사수신행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3) 대출모집인/수탁업체 등록 및 관리

이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는 수탁업체 등록신청서 및 수탁업체 소속 대출모집인 등록신청서를 일괄 중앙회에 제출 등록신청하고, 중앙회는 등록증 및 등록번호를 교부한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모집인 개인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언제든지 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앙회 등록여부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수탁업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앙회에 선등록 후 저축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수시로 수탁업체 소속 대출모집인의 자격요건 충족 및 등록여부를 확인하며 표준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등록취소사유 발생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중앙회 앞으로 통보하는 등 관리, 감독 및 책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4) 상호저축은행의 의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업체와 계약체결 사실을 중앙회 및 금감원에 사후보고토록 되어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후 대출모집인의 불법 부당한 행위여부를 서면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대출모집인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앙회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5) 대출모집 위탁계약

상호저축은행은 수탁업체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체결시 중앙회에서 교부한 등록증 사본을 징구하고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대출모집인은 수탁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중앙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탁업체간 복수로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복수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제도의 부재의 현실이지만 향후 대출모집인이 복수의 수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할 경우 수탁업체도 함께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전에 복수계약체결여부를 수탁업체도 중앙회를 통해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책임소재의 복수화로 대출모집인에 대한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6) 기대효과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에 따라 먼저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용이하여 부당, 불법수수료 정구에 따른 민원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는 모집인 자신은 물론 수탁업체까지도 인가취소의 조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탁업체 스스로 정화의 노력과 모집인에 대한 교육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저축은행도 중앙회에 등록된 수탁업체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대출서류 접수도 많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고객의 신뢰 보호 및 저축은행의 공신력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누구에게나 빌려주는 일명 누구나 대출과 같은 소액신용대출상품은 해동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한 이래 현재는 50여개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소액신용대출금액중 대출모집인에 의해 취급된 대출금액이 무려 98% 이상을 점한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대출모집인과 소액신용대출상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일시적인 손실현상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소매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수탁업체 및 대출모집인의 상하부관계 청산, 고객에 대한 불법수수료 수취 등의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 수탁업체 모두의 고객보호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第 5 章 外國 貸金業體의 不實債權回收 事例分析

: 日本을 中心으로

第 1 節 外國 貸金業體의 不實債權回收 事例分析

1. 부실채권회수의 성공사례 분석

일본 대금업체들은 소비자금융업체들의 이미지 탈피방안으로 채권회수 방법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성공적인 부실채권회수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상호저축은행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사례로 대표적인 대금업체인 다케후지는 주부 파트타이머를 앞세운 '소리 안나는 회수작전'으로 효율적인 대금회수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도쿄 신주쿠에 자리잡은 다케후지 본사는 240여명으로 구성된 불량채권 특수채권팀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팀이라지만 팀원의 대다수는 중년층 이상의 주부 파트타이머이다. 이들의 주임무는 대출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들에게 독촉장을써보내는 일이다. 독촉장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정해진 양식으로 인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특수팀 사원의 자필로 작성한다. 언뜻 보면 전혀 성과가 없을 것 같은 일에 인력과 자금만 투입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팀이 회수하는 돈은 연간 30억 엔에 이른다. 이는 연간 매출과 인건비(년 10억엔)를 비교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케후지는 남성직원들의 강압적인독촉 대신 편지라는 매체를 통하여 채무자들에게 기업이미지 제고는 물론 실질

적인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회수 방법이다.⁴⁾

국내 상호저축은행에서 부실채권회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회수방안은 지속적인 방문접촉을 통하여 재대출,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법제도를 이용한 방법, 타인에게 차용시키는 방법 등 통하여 변제시키는 회수방법이 주를 이룬다. 아래의 국내 모 신용정보사의 회수전략사례처럼 각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마다 그 구성순위와 방법, 비율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내의 한 대금업계가 실시한 연체자들의 정(情)적인 측면을 호소하는 회수방안을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 신용불량자수가 100만명을 넘고 있는 현실에서 채무자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된 독촉편지를 받고 스스로 변제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상호저축은

〈 표 5-1〉 국내 Y상호저축은행 부실채권회수 방법 분석

순 위	회수 방법	구성비율
1	변제능력을 갖춘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통한 재대출 형식의 대환론을 통한 회수	41 %
2	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법조치(부동산 및 동산압류, 급여압류 등)을 통한 회수	27 %
3	연대보증인과의 상담을 통해 채권금액의 원금 이나 이자의 감면조건으로 회수	17 %
4	채권금액의 분할납부를 통한 중장기적인 회수	9 %
5	기타 회수방법	6 %

자료 : 미래신용정보 (2002), <http://172.31.1.100/login.jsp>.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01), 계간지, 통권 제 54호, 겨울호.

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않았고 이미 국내 연체자들은 인쇄된 독촉장이나 전화독촉의 정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 버리는 현실에서 거주지가 확인 된 연체자들중 연체기간이 6개월미만일 경우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라고 본다. 6개월미만 연체자들의 연체 사유는 일시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의 요인이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외이미지 향상효과 및 향후 신용거래고객으로 전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하지만 다수의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영인력측면에서 비용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본 내 대금업체의 부실채권의 회수전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래 < 표 5-2 > 에서와 같이 P대금업체를 통하여 일본 내 대금업체들의 일반적인회수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체 발생 후 10일쯤 입금안내를 하며 1개월 이내 중견직원들까지 투입되어 채무자의 주소지 거주확인 및 대출신청서류의 진위확인과 채권확보를 위한 작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연체 발생 후 3개월까지 채무자들에게 자발적인 변제기회를 부여하다가 3개월 이후부터는 법적 조치로 부실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1년 시점까지 대출금이 완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담당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동산 및 부동산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가능능력의 판단 후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 한다든지 특수채권팀으로 이관하여 채무자들의 변제가능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일본 내 대금업체의 부실채권회수율은 전체 부실채권액 대비 40%를 초과하지만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평균 회수율이 15%대로 저조한 편이라고 신용정보협회의 2002년 6월말 기준 분석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와의 큰 차이점은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채권회수경력이 많은 중견직원이 담당하여 전담 고문변호사의 지도와 지시 하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상담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법조치의 실행에 있어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상호저축은행과는 다른 점이다.

국내의 사례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하기 보다는 전담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담당직원 개인이 법조치 실행여부를 판단하고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국내 상호저축은행에 적용하기에는 국내 부실채권회수관행에 비추어 힘든 회수방안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처럼 1개월 미만 연체채권의 담당을 파트타이머나 신입직원이 맡고 하고 3개월 이상의 부실채권의 경우엔 중견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분장체계는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다.

〈 표 5-2 〉 일본 P대금업체의 연체관리 사례분석

구분	임의회수			법적 회수	
	10일/초기	20일/중기	1개월/후기	3개월	1년
독촉방법	전화 등	전화 등	전화 등	법적회수 준비	강제집행
관리방안	입금안내	입금독촉/ 서류확인	주소확인/ 채권분할	주소확인/ 방문조사	고문변호사 상담
담당직원	파트타이머	신입직원	중견직원	중견직원	중견직원

자료: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http://www.sanghobank.co.kr>.

第 2 節 外國事例分析의 示唆點

일본 대금업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성공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점은 채권회수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운영, 대금업계 공동운영의 신용정보시스템,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통한 대손관리 등이다.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채권관리 부서직원의 업무분장시 경력에 관계없이 장·단기채권을 함께 맡게 하는 것 보다는 일본 대금업계의 < 표 6-2 > 와와 같이 신입직원들에게는 연체자들과 연락가능하고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들을 중심으로 3개월 미만의 단기채권의 회수를 담당케 하여야 한다.

3개월 ~ 6개월 미만 채권은 신입과 중견직원이 함께 담당케 하며 6개월이상 중기 연체자들의 경우 1년 이상의 회수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담당토록 하는 것이 채권회수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일본 대금업체와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주 객 공통점으로는 파악되는 점은 신용불량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에서는 신용불량자인 고객들에 대한 정보축적을 통하여 신용불량자그룹을 더욱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그룹에 적절한 금리차별화를 실시하고 있다. 세분화된 신용불량자들을 장기간 분석 관리함으로써 세분화된 그룹간의 전이확률들을 추정하고 이를 신용위험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스템개발부터 운영 관리까지 대금업체들이 공동으로 신용정보센타를 설립 운영중이다.

현재 국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신용정보시스템개발 및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정보시스템의 개발시 일본의 신용정보시스템의 정보내용처럼 개인신용정보를 광범위하게 집중·관리가 가능토록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조회정보: 대출조회 또는 관리조회
- ② 조회연월일
- ③ 자택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 ④ 대출구분, 대출일, 입금일, 대출금액, 잔액, 입금예정일
- ⑤ 최근 완제일
- ⑥ 대출건수, 계약합계액, 현재잔고
- ⑦ 대출명세
- ⑧ 조회회수
- ⑨ 연체정보, 불량거래정보
- ⑩ 기타정보

위와 같은 고객정보데이터의 축적은 스코어링시스템(Auto Scoring System)의 구축 및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대금업체들이 여신에 대한 적정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하여 대손관리를 함으로써 부실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상호저축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기준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등이 BIS 비율에 의거하여 결정됨을 감안할 때 신용불량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대출고객에 대하여 대출영업 확대시 BIS 비율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위험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내의 대금업체들의 부실채권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시도한다면 긍정적인 부실채권 회수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第 6 章 要約 및 結論

第 1 節 研究의 要約 및 結論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저축은행 부실채권의 현황과 발생원인 분석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외국(일본)의 부실채권회수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상호저축은행에 주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은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편의성, 신속성, 대출금리 등에 대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자격요건에 있어서는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 및 대출자격이 낮은 고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대출자격 미달자들의 중복 대출 또는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들이 수립할 수 있는 대안적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타 금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신용평점시스템, 행동평점시스템 등이 있다. 이들 시스템들은 대출자들의 사전·사후 신용에 관련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부실 징후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호저축은행들은 중앙회 차원에서의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이 시급하며, 각 상호저축은행들의 대출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대출 및 고객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실채권회수와 관련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상호저축은행들은 일본의 사례(다케후지)처럼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과 전략의 부재에서 발

생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인력확보와 활용을 위하여 대출모집인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검토하여 입법화하여야 한다. 또한 비교적 열악한 상호저축은행들이 스스로 신용평가 및 부실채권회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전국적인 규모 내지 지역적인 규모에서 상호저축은행간의 관련 업무를 공유하는 전문채권회수기구를 공동 설립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셋째, 신용평가 및 신용정보 기업에 고객신용평가와 대출회수업무 등을 아웃소싱하는 방법이 있다. 상호저축은행들은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규모가 작으며, 업무가 단순한 편이다. 따라서 대출자의 수에 비하여 이들을 관리할 수 인력이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을 관리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것처럼 상호저축은행 스스로 이들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워 보인다. 이를 보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용정보 기업 등과 관련 업무를 제휴함으로써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과 향후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현황분석과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이는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의 정보공유에 관한 폐쇄성과 정부와 금융기관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객관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대안적 자료와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상호저축은행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2, 제 3 금융권의 부실채권회수방안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과 함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후 사례분석을 할 경우 특정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결과와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실증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거시적인 차원의 자료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출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더 객관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제 2, 제 3 금융권의 부실채권회수방안에 논하기에는 상호저축은행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타 금융권을 포괄하기 위하여 이들 금융권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 강신규(1998), '은행 부실여신 발생원인과 향후 처리방안,' 한일경제, 3월호.
- 고성수(1996), 일본의 부실금융대책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감독원(1999), 보도자료, 1999.12월말.
- 금융감독원(2002), 상반기 가계대출 동향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2002), 은행권의 부실채권 현황 보도자료.
- 미래신용정보 특수채권2팀(2002), 경매업무 Manual.
- 박양수 외(1997), 주요국가의 금융개혁 사례와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1부 해외조사실.
- 산업연구원(1998), 외국의 금융위기 극복사례와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1), 계간지, 통권 제 51호, 6월 호.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1), 계간지, 통권 제 52호, 7월 호.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1), 계간지, 통권 제 53호, 가을 호.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1), 계간지, 통권 제 54호, 겨울 호.
-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2), 계간지, 통권 제 56호, 여름호.
- 손수근(2002), 『저축은행과 대금업체의 동반파산 우려』, 내외경제, p. 3.
- 이영만(2002), 여신심사 및 관리, 한국금융연수원.
- 이철현(1997), 『미.일의 부실채권정리 사례와 시사점』, 금융위클리.
- 유광수(1998), "외국금융기관 사례를 통한 국내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전공 석사논문.
- 윤익권(2000), 채권추심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 장경순(2002), "은행권 신용위기 온다-간부까지 나서 대출세일," 파이낸

설뉴스, 9월호, pp.79-98.

장경학(1997), 『채권강제회수의 법률상담』, 법전출판사.

염기부(2000), 『금융업채권관리』, 홍익재.

최봉준(2001),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경영지원팀.

한옥상, 신연수, 임병진(1999), 『금융마케팅』, 한울출판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2000),Annual Report.

KDB 조사부(1998),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와 구조조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은행.